


이 력 서

(희망연봉 : 회사 내규에 따름)

(지원 부문 : 웹 퍼블리싱)

	성 명	강 한 나		
	생년월일	1996년 03월 25일	연 령	만 26세
	E-mail	ssenna3@naver.com		
	휴 대 폰	010-9355-0175	비상연락처	010-3539-0173(母)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65		

1. 학력사항

년 / 월	학 교 명	학 과	졸 업 구 분
2015년 02월 ~ 2021년 08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정보보안학과	졸업
2012년 02월 ~ 2014년 12월	와부고등학교	문과	졸업

2. 교육사항

년 / 월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관	비 고
2021년 12월 ~ 2022년 05월 (95일, 760H)	(디지털디자인) UI/UX 반응형 웹디자인&웹퍼블리셔(디자인&코 딩) 양성과정	그린컴퓨터아카데미	수료

3. 직무능력사항

프 로 그 램(사용언어)	활 용 능 령
HTML5	웹 표준을 준수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구현 가능
CSS3	- Layout을 파악하고 HTML5에 적용 가능 - Media Query를 이용하여 반응형 웹 구현 가능
JavaScript	- 기본 구문과 구조, DOM 조작 방법 학습 - Ajax, Event, Prototype 개념 학습
jQuery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한 효과는 직접 개발 가능
Photoshop, Illustrator	기초적인 이미지 수정, 보완 가능
MS Office(워드/엑셀/Power Point)	함수를 이용 가능, 기본 기능들을 알고 원활한 문서 작업과 PPT 작성 가능

4. 포트폴리오

주 제	URL(총 페이지 수)
포트폴리오	https://hannabananah.github.io/portfolio/
울진군 문화관광	https://hannabananah.github.io/Project1/
델몬트	https://hannabananah.github.io/Project3/
땡땡입장 App	https://www.figma.com/proto/EkgAyYj3XtvrTt8N7pR6A/%EB%8C%95%EB%8C%95%EC%9E%85%EC%9E%A5-%EC%95%B1?node-id=189%3A2978&scaling=scale-down-width&page-id=189%3A2975&starting-point-node-id=189%3A2978&show-proto-sidebar=1
안랩	https://hannabananah.github.io/Project_AnhLab/
에듀드	https://hannabananah.github.io/Project_ETUDE/
React 영화 App	https://hannabananah.github.io/movie_app/

5.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회 사 명	직 무
2021년 6월 ~2021년 11월	양동면사무소	산업팀 사무보조
2019년 4월~2021년 2월	개인사업	숙박업
2017년10월~2018년02월	넥스지	보안통합솔루션 개발, 검수-인턴직
2016년12월~2018년01월	피자헛	피자메이킹
2015년06월~2016년10월	VIPS	오픈키친 요리

6. 자격 및 면허취득 사항

취 득 일	자 격 증 명	발 행 기 관
2021년 04월 14일	PTE(영어공인시험) Overall70	Pearson
2016년 09월 02일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보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7. 어학연수 및 봉사활동

활 동 기 간	소 속 조 직(국가명)	주 요 활 동 내 용
2019년 03월 ~ 2021년 2월	호주	어학연수
2017년 07월~2017년 07월	서울여자대학교 세계문화체험과 봉사활동(베트남)	해외봉사
2015년 03월~2016년 12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회	경제학과 홍보국장

자 기 소 개 서

<p>지 원 동 기</p>	<p>“익숙함과 새로움의 접점에서 찾은 미래”</p> <p>작년 초, 어학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프리랜서로서 웹디자인 일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웹퍼블리셔교육을 받고 있는 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웹디자인에 관해 묻다가 이쪽 계열이 매년 익숙하게 봐온 웹페이지의 전면적인 부분을 구현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저의 섬세함과 심미적으로 감각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수전공에서 배운 언어와는 다르지만 웹퍼블리싱 분야도 언어를 사용해서 코딩을 한다는 것이 왠지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와 같은 툴을 책이나 영상을 통해 배우고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니에게 물어보면서 배웠습니다. 몇 달간 독학으로 배우고 난 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웹퍼블리셔 양성반을 알게 되었고 작년말부터 학원에서 성실히 다양한 언어를 배우며 독보적인 웹퍼블리셔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초반에는 HTML과 CSS의 모양이 낯설고 코드를 따라 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꾸준히 교육을 수강하면서 이제는 원하는 웹구현을 위해 HTML과 CSS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JavaScript와 JQuery를 통해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p> <p>앞으로도 배워야 할 언어와 익혀야 할 기술들이 많습니다. 당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p>
<p>성 장 과 정</p>	<p>“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도전정신과 긍정적인 마음”</p> <p>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려는 부모님의 큰 뜻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운동과 악기를 배우고 여러 곳을 여행 다녔습니다. 그 덕에 낯선 환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가령,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매년 똑같이 진행되던 행사를 다른 구성으로 참신하게 구성해보고, 해외에 나가 외국 가정에서 지내면서 그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로 일한 경험. 그리고 혼자 여행하면서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등과 같은 일련의 경험들이 저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p> <p>이러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하면 추진력 있게 준비하여 거침없이 실행하는 자세로 웹퍼블리싱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도 그에 맞춰서 적응을 잘 할 자신이 있으며 배움에 대한 갈망이 많은 저로서는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p>

<div> <div>학 교</div> <div>생 활</div> <div>및</div> <div>교 육</div> <div>활 동</div> <div>(경 험</div> <div>사 항)</div> </div>	<div> <div>“주어진 위치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집니다.”</div> <div> <p> 대학생 시절, 홍보국원으로서 학생회활동을 하였습니다. 홍보국은 과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전반적인 구성부터 행사장의 포토월이나 현수막, 홍보포스터 등의 디자인작업과 행사 중에 사진촬영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행사개최를 홍보하는 일까지 전반적으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부서입니다. 1학년 때 첫 행사를 할 때는 어떤 컨셉으로 정해야 할지, 포토월이나 포스터 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이전 행사들의 결과물을 참고하며 그 안에서 변형을 주는 다른 부원들과 함께 밤을 새 가며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선배님들도 노력한 티가 많이 난다며 칭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행사들을 치르고 하다 보니 감이 잡히고 능숙해졌고 디자인 툴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행사의 컨셉이 시상식 이면 포토월이나 전체적인 행사장분위기도 화려한 연말파티 분위기가 나게 꾸미는 등 어느샌가 즐기면서 일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학생회활동에 애정을 담아 해서 그런지 2학년 때에 홍보국장으로서 임명되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을 주관하며 기획과 마케팅 분야와 더불어 행사의 디자인을 보는 감각을 키웠고 후배들에게도 행사장을 꾸밀 때 특히 어느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하는지, 디자인 툴은 어떻게 다루는지 등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공유해주었습니다. 또한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일종의 팀프로젝트이다 보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작업환경이나 정해진 예산 등의 주어진 환경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물이 무엇일지에 대해 서로가 많은 대화를 하며 큰 갈등없이 잘 해결한 경험이 있고 부원들이 잘 따라와준 덕에 항상 만족스럽게 행사를 마쳤던 기억이 있고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p> <p> 이러한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 웹퍼블리셔로서 일할 때에도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나날이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회 활동을 하며 선배, 동기 그리고 후배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님, 다양한 외부 거래업체분들을 대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듯이 회사에 입사해서도 사내 분위기에 잘 어우러지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심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p> </div> </div>
---	---

<p>성 격 장 점 및 단 점</p>	<p style="text-align: center;">“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와 끈기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뤄냅니다.”</p> <p>어렸을 적, 집 거실에 크게 붙어있던 가훈, ‘이루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有志竟成)’라는 문구를 보고 자란 영향인지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지구력이 강합니다. 누군가는 독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렬한 의지와 더불어 이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끈기를 통해 목표를 이뤘을 때의 성취감을 조금은 알기에 저는 목표를 세울 때 구조적으로 필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우선, 왜 이 목표를 설정했는지, 동기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무슨 노력을 해야하는지,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또한 적어둡니다. 웹퍼블리셔를 공부하면서도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획과 방향을 잡고 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p> <p>이러한 목표를 향한 열망과 완벽하게 해내려는 욕구 탓에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제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업무적으로든, 자기개발을 위해서든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님을 깨닫고 현재는 잡념을 버리고 몇 시간씩 건거나 요가를 하거나, 일기장에 복잡한 생각들을 다 적는 등 저만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니 심신이 보다 건강해진 것을 느끼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도 월등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p>
<p>입 사 후 포 부</p>	<p style="text-align: center;">“누구와도 원활하게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될 것입니다.”</p> <p>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의 중간자로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의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웹퍼블리셔’가 될 것입니다.”</p> <p>주어진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코딩을 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어떤 레이아웃 구성이 인터페이스에 적합할지 등과 같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양한 연구를 함으로써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배움을 즐기는 ‘신입사원’이 될 것입니다.”</p> <p>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웹퍼블리싱의 분야는 아직도 무궁무진 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언어와 최신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계속해서 바뀌는 새로운 웹 서비스 분야에서 그 트렌드에 발맞추어 공부하고 주어진 업무내용에 대해 빠르게 습득할 자신이 있습니다.</p>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2 년 5월 1일

성 명 : 강한나 (인)